

‘평화당 집단 탈당’ 광주·전남 단체장 셈법 복잡

탈당·잔류 갈팡질팡...지방의회 새 프레임 예상 내년 총선 지역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할 듯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가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향후 거취를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국회의원들이 탈

당 D-데일로 잡은 오는 16일께 지역정가의 변화가 율곡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뜻을 함께 하기로 결심을 굳히는가 하면 일부는 잔류와 탈당이나를 놓고 고심

하고 있다. 13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소속 기초의원 9명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1명, 서구 2명, 남구 2명, 북구 4명이다. 광주 동구의회 홍기열 의원은 "장병완, 최경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탈당 의사와 당위성을 미리 들었지만, 구체적인 동반 탈당 제의는 없었다"며 "국회의원 탈당에 연연하지 않고, 정당을 초월해 기초의원

역할에 충실하겠다. 상황을 지켜보며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취를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당분간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면서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의 사무국장 출신인 김 의원은 탈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최경환 의원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은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탈당도 염두에 두고 있다. 탈당한다면 무소속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소속 명현관 해남군수는 13일 "아직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남 출신 김희동 전남도 의원은 "16일

께 지역위원장(윤영일 국회의원)이 탈당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위원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의 평화당 소속 시의원은 6명으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박 의원이 이번 주 지역구로 내려와 향후 큰 그림에 대해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안정당 탈당으로 내년 총선은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총선은 선거구 확정에 따른 선거구 변동과 후보들이 난립하는 다자구도, 선거바람 등 변수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김대중전집’ 완간 출판기념회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전집’ 30권 완간 출판기념회에서 김용학 연세대 총장(오른쪽 세번째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추석맞이 우수 농식품 특별 판매전

오늘부터 수도권서 장흥표고버섯 등 200여 품목

전남도는 1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서 '추석맞이 전남산 우수 농식품 특별 판매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한가위명절선물전'은 14일부터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한가위 명절 선물전에는 정남진 장흥표고(주), 순천만함초영농조합, ㈜장수식품 등 35개사가 참여해 도지사품질인증, 6차산업인증 등 도내 우수 제품 200여개 품목의 농식품을 선보인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에서는 '추석맞이 전남산 우수 농식품 특별판매전'을 통해 우수 돌산갯영농조합, 장성 북하특산물사업단 등 12개 업체가 참여해 친환경성을 비롯한 배추김치, 장아찌, 젓갈 등 전남산 우수 농수산

물을 가공한 110여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에 나선다.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는 국내 농협 하나로마트 중 매출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도내 중소기업 스스로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홍보 및 판매전을 계기로 도내 농식품 업체가 창동하나로마트 입점을 원할 경우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판촉행사는 1년 중 매출 기대효과가 가장 큰 추석명절 전에 개최되는 행사로 도내 농식품업체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우수한 제품들이 구매장에서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광주·서울, 마이스 분야 공동 마케팅

서울시청, 광주시·서울시 등 4자 협약체결 경쟁력 제고·지역 상생발전 공동 협력키로

광주시와 서울시가 마이스(MICE) 분야 공동 마케팅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서울관광재단 등 4자가 참여하는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마이스 유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양 도시가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

bitions/Events)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항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MICE 상품개발 및 운영과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도시 투어 프로그

램 지원금 지원 ▲공동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양 도시는 앞으로 국내외 주요 MICE 전시회와 상담회 등에 참가해 MICE 상품을 알리기 위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MICE 전문매체를 활용한 미디어광고와 웹진, 뉴스레터 등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해외 MICE 주최자 등의 현장답사시 양 도시의 매력적인 명소를 함께 홍보하고, 양 도시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ICE 행사를 대상(외국인 50명 이상 단체, 해당지역 1박 이상)으로 투어에 필요한 차량비, 식비 등 양 도시에 서 각 1인당 1만원씩, 총 2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시는 서울시와의 MICE 공동 마케팅으로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시는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 미래 전시·컨벤션서밋'에서 양 도시 간 MICE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두 도시 간 다양한 홍보 프로젝션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위해 양 도시는 지난 7월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약의 세부 지원항목과 기준 등 실질적인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지난 9월부터 열고 있는 해외 MICE 전문 전시회인 '2019 ASAE 세계총회'에서는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양 도시의 MICE 공동 마케팅이 큰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한전공대 설립 계획안 국무회의 보고 무산

이달말 국무회의 상정키로

한국전력 이사회가 가결한 학교법인 한전공대(가칭) 설립 및 법인 출연안(기본계획안)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8월말 국무회의로 연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한전공대 기본계획안은 의견상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따른 안건의 중요성에 등에 밀린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예정된 2사분기 공공기관 상장 기관 실적발표를 앞두고 한전공대 기본계획안이 보고될 경우 한전이 투자할 자금

등에 대한 떠안을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할 방침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연말 내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한전 사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법인이 설립되면 역량 있는 총장과 교직원 공모와 채용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학생은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 총 1,300명이다. 교수와 일반 직원은 각 100명이다. /서울=강병은 기자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담문의 080-815-8150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협회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 내외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까지 생각하는 지역특화산업 부활 (전주 한지)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1천억 무담보·무이자 대출
- 3~7세 아동·65세 이상 치매노인 위치알리미 무료 보급
- 65세 이상 조합원 헬스케어 '어부바 효(孝) 에타금'

준법감사필: 제 2019-17호 (2019.7.26) / 유효기간: 2019.8.7~2020.8.31